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㉔ 마조 도일(馬祖道一)



▶ 한줄 요약
마조는 〈단경〉의 사상을 온전히 계승하여 더욱 직접적인 언구로 그를 표현하였고, 나아가 다양한 기연어구(機緣語句)가 담긴 선문답(禪問答) 등의 제접법(提接法)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단경〉 온전히 계승해 직접적 언구로 표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구가하던 당조(唐朝)는 안사(安史)의 난 이후 점차 쇠락하게 되는 시기에 혜능(慧能)의 남종선(南宗禪)은 오히려 천하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것은 파촉의 성도(成都)에서 신라 출신의 무상(無相)이 피란한 현종(玄宗)의 귀의를 받았고, 하택(荷澤) 신회(神會)가 안사의 난을 평정하는 데 절대적인 공로를 세웠으며, 남양(南陽) 혜충국사(慧忠國師)가 숙종(肅宗)과 대종(代宗)의 귀의를 받아 제도(帝都)에서 18년에 이르도록 교화했던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으니, 모두 혜능의 문하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강서(江西)와 호남(湖南) 지역에서도 마조 도일(馬祖道一)과 석두 희천(石頭希遷)이라는 불세출의 선승들이 출현하여 각각 그 지역의 법주(法主)를 맡아 혜능의 남종선을 선양하였다. 송대 지반(志磐)이 찬술한 〈불조통기(佛祖統紀)〉에서는 "육조 이후 두 파(派)를 이루었는데, 하나는 청원 행사(靑原行思)이고, 행사는 석두 희천에게 전하였으며, 그 문하에 조동(曹洞)·운문(雲門)·법안(法眼)을 이루었다. 다른 하나는 남악 회양(南嶽懷讓)으로, 회양은 마조도일에게 전하였고, 그 문하에 임제(臨濟)·위앙(潙仰)을 이루었다. 이렇게 오가종파(五家宗派)가 되었으나 도(道)는 하나일 뿐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듯이 마조와 석두로부터 조사선의 오가(五家)가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송고승전〉 권9에는 "강서(江西)의 법주는 대적(大寂: 馬祖)이요, 호남(湖南)의 법주는 석두로서 서로 왕래가 끊이지 않아 두 대사(大士)를 친견하지 못한다면 (도를) 알 수 없을 정도이다."라는 기사로부터 마조와 석두 두 선사의 문하는 서로 왕래하면서 남종선을 선양했다고 하겠다.

그런데 신라의 선사들이 중국에서 구법(求法)하고 귀국하여 성립한 '구산선문(九山禪門)'은 대부분이 마조계열이며, 나아가 한국 불교의 적통(嫡統)을 마조계로부터 출현한 임제종(臨濟宗)으로 설정하고 있으니, 우리 불교의 전통에서는 마조 도일(709~788)이 더욱 친밀하다고 하겠다. 그에 따라 마조의 생애와 사상을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마조의 전기는 〈경덕전등록〉 권6과 〈송고승전〉 권10에 전기가 실려 있으며, 그 외에 수많은 전적에 그와 관련된 자료와 일화들이 실려 있다. 그에 따르면, 마조는 한주(漢州)의 십방(什邡: 현 四川省 什邡市 馬祖鎭) 출신이며, 속성은 마(馬)씨라고 한다. 마조는 용모가 기이하고, 소걸음에 호랑이 눈길이었으며, 혀를 내밀면 코를 덮고, 발바닥에는 두 개의 바퀴 무늬가 있었다고 한다. 어려서 자주(資州), 즉 본향의 당화상(唐和尙)에게 출가하였으며, 유주(渝州: 현 重慶市)의 원(圓)율사에게 구족계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마조가 출가한 은사는 바로 당화상, 즉 처적(處寂)으로 정중종(淨衆宗)을 건립한 신라의 무상(無相)선사의 스승이니, 무상과는 같은 문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종밀(宗密)의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抄)〉 권3에는 "검남(劍南) 사문(沙門) 도일(道一)은 속성이 마 씨로 김화상(金和尙)의 제자이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여기에서 김화상은 바로 무상선사를 가리킨다. 그러나 중국에서 법계(法系)를 논할 때 그 법의 정통성을 가지고 사승(師承)을 정하기 때문에, 비록 마조가 무상에게 사사 받았다고 해서 무상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마조와 무상의 선사상은 결코 동일한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회양(懷讓)을 만나기 전에 무상으로부터 선법을 사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후대에 신라의 구법승들이 마조계열을 찾은 원인에는 이러한 무상과의 인연도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조는 개원(開元) 연간에(대체로 735년으로 추정) 형산(衡山) 전법원(傳法院)에서 머물면서 종일 좌선(坐禪)하였는데, 이는 무상으로부터 사사 받은 선법을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상은

**당화상 은사 출가 원율사 구족계**
**무상에게서 선법 사사 가능성 커**
**습공산 보화사서 28년 동안 설법**
**마조의 '평상심'과 '돈오' 후 '마음'**

"매번 입정(入定)하여 5일을 넘겼다."라는 기사가 보일 정도로 선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당시 회양이 마조를 보고 법기(法器)임을 간파하고서 마조를 깨우치는 유명한 '마경(磨鏡)'의 고사가 출현한다. 회양은 마조가 좌선하는 암자의 문 앞에서 벽돌을 갈고 있었는데, 마조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며칠 동안 계속되자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고, 회양은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든다고 답하자 마조는 벽돌로 어찌 거울을 만드는가를 물었다. 그에 회양은 "소가 마차를 끄는 것에 비유하자면, 마차가 만약 가지 못하면, 소를 때리는 것이 옳은가? 마차를 때리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교계(敎誡)하였다. "네가 좌선을 배움에, 좌불(坐佛)을 배움이 된다. 만약 좌선을 배운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禪非坐臥]. 만약 좌불을 배운다면, 부처는 정해진 상(相)이 아니다. 머무는 법이 없는 곳에서, 마땅히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 네가 만약 좌불한다면,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요, 만약 좌상(坐相)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통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조는 대오(大悟)하였다고 한다. 이 고사는 〈마조어록〉과 〈경덕전등록〉, 〈고존숙어록〉 등에 실려 있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용되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이로부터 '선비좌와(禪非坐臥)'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당연히 이는 〈육조단경〉으로부터 연원한 사상이다.



마조 도일 진영.

이렇게 회양으로부터 깨달음을 열고서 마조는 십여 년간 회양의 문하에 머물다가 남악을 떠나 남방의 건양(建陽) 불적령(佛迹岭: 현 福建省 南平市 建阳區)에 이르러 개당설법(開堂說法)을 하여 그곳에 머물렀고, 후에 임천(臨川: 현 江西省 撫州市)으로 옮겼다가 다시 건주(虔州: 현 江西省 贛縣)의 습공산(襲公山) 보화사(寶華寺)에서 28년 동안 법을 펼쳤다. 그 후 대력(大歷) 4년(769), 홍주(洪州: 현 江西省 南昌市)의 개원사(開元寺: 현 佑民寺)에 머물면서 법을 펴자 사방에서 학인들이 운집하여 크게 행화를 이루었고, 그에 따라 '홍주종(洪州宗)'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마조어록〉과 〈경덕전등록〉에 따르면, 마조는 정원(貞元) 4년(788) 정월에 건창(建昌)의 석문산(石門山: 현 江西省 宜春市 靖安縣)에 오르다가 "나의 썩을 몸이 다음 달에 이곳에 귀속하리라."라고 하였는데, 2월 4일에 미질(微疾)이 일어나 목욕하고 가부좌를 틀고 입적하였다고 한다. 원화(元和) 연간에 대적선사(大寂禪師)라는 시호를 받았고, 탑호를 대장엄(大藏嚴)이라고 하였다.

마조의 제자들은 "입실(入室) 제자가 139명으로 각 지방의 종주(宗主)가 되었다."라고 하듯이 상당히 많으며, 그 가운데 중요한 제자로는 백장회해(百丈懷海), 서당 지장(西堂智藏), 남전 보원(南泉普願), 귀종 지상(歸宗智常) 등이 유명하고, 백장 문하에서 위산 영우(潙山靈祐)가 위앙종(潙仰宗)을, 또한 백장의 또 다른 제자인 황벽 희운(黃檗希運)의 제자인 임제 의현(臨濟義玄)이 임제종(臨濟宗)을 열었다.

마조의 선사상은 상당히 방대하지만, 이른바 '도불용수(道不用修)',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즉심즉불(卽心卽佛)' 등은 중국선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익히 알 정도로 유명하다. 따라서 간략하게 그를 논하기로 하겠다. 〈마조어록〉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한다. "도는 닦음을 쓰지 않으니[道不用修], 다만 오염되지 말라. 어떻게 오염되는가? 다만 생사의 마음이 있어 조작하고 좇아가면 모두 오염이다. 만약 바로 그 도를 알고자 하면 평상심(平常心)이 도이다. 무엇을 평상심이라 이르는가? 조작(造作), 시비(是非), 취사(取捨), 단상(斷常), 범성(凡聖)이 없음[無]이다." 여기에서 명확하게 '도불용수'와 '평상심시도'의 사상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평상심'에 대한 규정은 결코 일반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바로 "조작·시비·취사·단상·범성"이 없는 상태가 '평상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시비·취사"가 없다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만약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취하고 버리는 행위가 없다면 100m도 못가서 사고가 발생할 것이 당연하다. 마조의 '평상심'은 바로 '돈오(頓悟)'를 이룬 후의 '마음'이다. 또한 '도불용수'도 역시 '돈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상태이다. 이는 〈마조어록〉의 다음과 같은 문답에서 도출할 수 있다.

승려가 물었다. "어떠한 것이 수도(修道)입니까?" 답하였다. "'도'는 '수(修)'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수'를 통하여 얻는다면, '수'로 이룸은 또한 무너지기 때문에 바로 성문(聲聞)과 같을 것이다. 만약 '불수(不修)'라면 바로 범부와 같을 것이다.

이로부터 마조는 바로 '무수지수(無修之修)'를 제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단경〉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마조의 '즉심즉불'도 또한 '돈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흔히 '마음이 부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심한 오해이다. '심'에 '즉'했을 때 '불'에 '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의 의미는 상당히 복잡하고 심오한데, 이른바 '중생즉불(衆生卽佛)'이나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중생즉불'이 중생과 부처가 같다는 의미일까? 중생과 부처의 관계가 '즉'이라는 의미이지 절대로 같다는 것은 아니다. 〈단경〉의 사상적 핵심을 '즉심즉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처럼 마조의 사상은 그대로 〈단경〉에서 제시하는 사상과 거의 같다. 그에 따라 〈단경〉의 사상적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조의 사상 역시 이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짧은 지면에 그를 모두 논증할 수는 없지만, 마조는 〈단경〉의 사상을 온전히 계승하여 더욱 직접적인 언구로 그를 표현하였고, 나아가 다양한 기연어구(機緣語句)가 담긴 선문답(禪問答) 등의 제접법(提接法)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마조의 선사상적 의의라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